

06

시화간척지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간척지 임시사용범위 확대로 향토문화 축제 및
문화예술 공연·전시 가능

 추진부서 경기도 안산시 대부개발과 031-481-6981

개선배경



- 「농어촌정비법령」 및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임시 사용 범위(연구·시험용 작물 재배)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간척지 매립 공사(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이 어려움
- 간척지 내 각종 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등이 무단으로 투기된 채 방치되어 있어 토양·수질 오염 및 악취 민원 발생
- 무단 방치 쓰레기 주변 미관을 저해하여 안산시 관광 이미지 훼손 우려

※ 관련규정

－ 「간척지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정의)

개선내용



개선전

- 개간척지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 (간척지 임시사용 범위 제한)
- 연구 시험 등을 목적으로 단년생 (다년생 포함) 작물이나 목본류 등 경작만 가능



개선후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2조의2 신설 (간척지 임시사용 범위 확대)
- 단년생 작물의 경작
- 농업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시험 연구를 위한 작물 등의 경작
- 향토문화축제 및 문화예술 공연·전시 가능

〈추진경과〉

- － 법률 개정 간담회 및 개정의견 검토 요청 : 2015. 8.
- － 시화간척지 임시사용기간 확대 등 협의[↔한국농어촌공사] : 2015. 12.
- － 대송단지 안정적 사용방안 연구용역 실시[경기TP] : 2016. 1.~10.
- － 대송단지 연구용역 요약본 제출 및 반영 건의[→농림축산식품부] : 2016. 8.
- － 사용목적 확대를 위한 정책건의 : 2016. 9.
- － 시화간척지 임시사용기간 확대 등 협의[↔한국농어촌공사] : 2017. 4.
- － 규제개선 건의(안산시→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 : 2017. 6. 23.
- －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대부해양관광본부 방문(1차) : 2017. 10. 13.

-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대부해양관광본부 방문(2차) : 2017. 11. 29.
-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건의(경기도→국무조정실) : 2018. 1. 23.
- 관련 기관(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한국농어촌공사) 현장방문 및 연찬 : 2018. 1. 30.
- 국무조정실(규제개혁신문과) 주재 현장 컨설팅 실시 : 2018. 3. 6.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 : 2018. 5. 1.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 2018. 8.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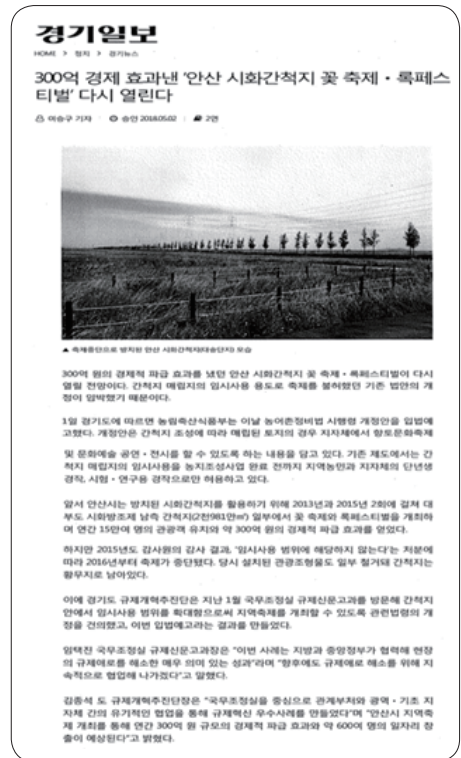
개선효과



- 다양한 향토 문화 축제·공연 전시를 통한 대부도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경제적 파급 효과 : 300억원(년) / 일자리 창출 : 약 600여명
- 미준공 상태 장기간 방치된 시화간척지 합법적 사용가능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추진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 민원 해소



위치도



언론보도

임시사용 간척지 사용범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든다



✎ 작성자 경기도 안산시 대부개발과 백종선 031-481-6981

오랫동안 방치돼 오던 시화간척지에 테마파크를 만들고 “튠업축제”와 같은 꽃 축제와 “락 페스티벌”등을 유치하며 외부 관광객들의 많은 방문으로 상가는 물론 주민 대다수가 변화되는 지역의 미래를 기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임시사용 간척지에서 할 수 있는 “임시사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에 따라 관광 조형물등이 철거되고 모든 축제가 중단되면서, 주변 상가 경기 침체는 물론, 장기 방치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안산의 관광 이미지 훼손 등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에는 공공용 임시 사용 범위를 “연구시험등을 목적으로 단년생(다년생 포함) 작물이나 목본류 등 경작만 가능” 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여타 다른 행위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간척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을 그동안의 축제, 행사 등이 가능하도록 개정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2015년부터 지역 국회의원·시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실시 및 상위기관에 불합리한 내용을 수차례 건의하였고, 안산시 예산법무과,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간담회 및 현장 설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한 바,

마침내 2018. 8월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어 마침내 그동안 간척지 임시사용에 대하여 법령의 근거 없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 지침에 의해서만 규정되었던 것을 농어촌정비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축제 공연, 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꾸준히 두드렸던 규제개선 요구사항이 관련 기관 및 부서 사람들의 협업과 노력을 통해 성과를 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부도 시화간척지에 행사 및 축제 등이 활성화 될 수 있어, 향후 안산시 대부지역은 이전보다 연간 50만명 이상의 관광객과 3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시 약간의 불편함으로 생각되어질 규제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여 많은 변화를 포기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앞으로도 개선되어야할 규제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